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의상치료 효과(제1보)

신 현 영 · 이 인 자

건국대학교 의류학과

Effect of the Fashion Therapy for the Psychiatric Patients(Part I)

Hyun Young Shin · In Ja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Kon Kuk University
(2000. 5. 29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n self-esteem and emotion of an improved self-appearance image among the female psychiatric patients, and the therapeutic effect of fashion therapy. The treatment intervention was provided for 37 psychiatric patients and the data of 17 participants was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ctual self-appearance image improved overall and all factors. Their expectation for the 'attractive' image was heightened. Their self-esteem was improved and negative emotions were reduced overall and depression.
2. The changes of the actual self-appearance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negative emotion overall, especially anxiety, depression. Improvement of 'attractive' image had the most correlation.
3. The changes of the ideal self-appearance image didn't have th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but negative correlation with emotions overall and anxiety, depression and hostility.
4. The change in the incongruity of their ideal and actual self-appearance image overall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change of self-esteem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negative emotion, especially depression and hostility.

Key words: fashion therapy, psychiatric patients, self-appearance image, self-esteem, negative emotion; 의상치료, 정신장애자, 자기외모이미지 자기존중감, 부정적 정서

I. 서 론

자기의 시각적 상징인 개인의 외모는 자기확립과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개인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신장애자의 보편적 임상특징은 낮은 자기

존중감, 정서적 고통, 무관심 등으로 이는 정신장애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외모를 통해 현저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의복은 정신장애자를 위한 치료의 보조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정신장애자로 하여금 외모에 관심을 갖게 하여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Goffman, 1963; Horn & Gurel, 1981; Kefgen;

1981; 이인자, 1984 b; 神山進, 1985; 강혜원, 1995). 한편 정신장애자의 의복행동욕구가 정상인에 비해 높고(이인자, 1984 a),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사회적응을 잘 하고 재발율도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Farina, Burns, Austad, Bugglin & Fisher, 1986)에서와 같이 그들의 욕구충족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외모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신장애자들은 외모관리를 포함한 모든 사회기술이 퇴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향상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기회상실은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입원환자나 적절한 동기부여와 외모관리기술이 부족한 낮병원환자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외모와 정신장애의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은 어려우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정신장애자의 외모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져야 하며, 인류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Farina, Fisher & Mermin, 1977; Burns & Farina, 1992). 미국에서는 오래 전에 가정학분야에서 사회복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Matthews(1975)는 정신장애자를 비롯한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재활을 위한 외모관리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73년 가정학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공동연구회의 활동보고와 함께 가정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은 Yoder와 Morgado(1985)에 의해서 거듭 지지되었다.

국내 정신장애자의 유병율은 1997년 현재, 총 인구의 2.16%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및 사회복지 체제확립을 목표로 정신보건법이 1995년 12월에 제정·시행(보건복지부, 1997)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학문영역에서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모와 관련된 독립된 연구는 거의 없고, 치료현장에서도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로 기초적인 외모관리 훈련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녕과 복지의 기여라는 의류학의 본질(이은영, 1996)과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상치료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거듭 제시(이인자, 1984 a)되었으나, 의류학 분야에서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자의 치료와 사회적응

을 돕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의상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 치료적 효과를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상치료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적 자기외모 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외모이미지 및 자기존중감은 향상되고 부정적 정서는 감소되는가를 알아본다.

둘째, 현실적 및 이상적 자기외모이미지 변화와 자기존중감, 부정적 정서변화와의 상관성을 알아본다.

[그림 1]과 같이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자기외모이미지, 자기존중감 및 부정적 정서의 세 가지 변수로 구성하여 자기외모이미지는 현실적 외모이미지와 이상적 외모이미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정서는 대표적인 불쾌 정서인 우울, 불안, 적개심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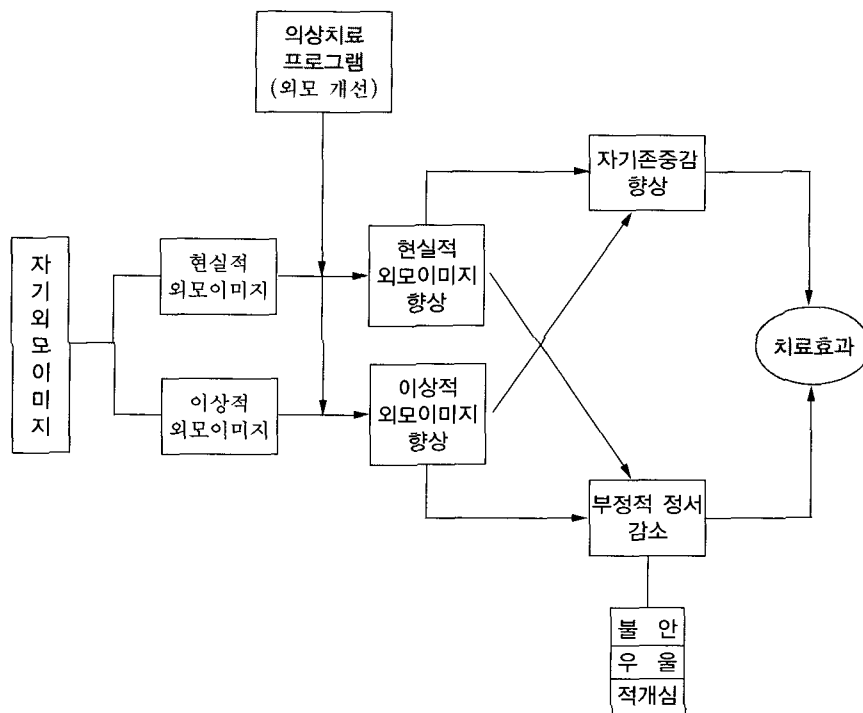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1. 의상치료

정신장애자의 치료는 적응, 창의성 및 잠재력의 실현과 같은 보다 긍정적인 행동을 목표로 이루어진다(홍대식, 1985). Bergin과 Garfield(1971)는 정신장애자를 위한 치료는 장애자 개인특성에 초점을 맞춘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정균(1996)은 모든 일상적인 인간활동에서 치료적 가치를 발견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Callis(1982)는 정신장애자를 위한 치료방법이 다양한 것은 완벽한 치료방법이 없고, 재활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어떤 치료방법이든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의상치료 연구를 시도하였다.

‘의상치료’(fashion therapy)는 여러 학자(Horn & Gurel, 1981; 이인자, 1984 b; 강혜원, 1995)에 의해 정의되었듯이 의복을 중심으로 인체에 추가되는 모든 요소들을 사용하여 외모를 개선시킴으로써 자기존중감 향상과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치료 및 사회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기존중감 향상은 자기와 관련된 여러 차원을 변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Watkins, 1978). 개인의 밀접



[그림 1] 연구 모형

한 환경인 의복과 외모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상치료'는 정신질환 및 외모로 인해 자기존중감이 낮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사회적응력이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행될 수 있다. 여러 학자들(Feather, Kaiser & Rucker, 1988; Fitzwater, Moore & Gurel, 1993; Rickert, Hassed & Cunniff, 1996)이 신체적 손상이나 결함을 지닌 사람을 위해서, Kefgen(1981)은 재소자들의 사회적응과 재범을 감소를 위한 의상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의상치료'는 2차 대전을 전·후해 새로운 치료개념으로 '환경치료'(milieu therapy)가 제창되었을 때, 민주적인 환경조성의 하나로 탈재복화(이영문, 1993)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의상치료는 1959년 California의 Napa주립병원의 여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패션단체의 도움으로 패션쇼 관람, 외모관리 강좌 및 외모개선, 옷의 제작 및 환자들을 위해 디자인된 옷을 입고 패션쇼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정신장애자들은 자기외모

에 대해 긍지를 갖게 되었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호전되어 특히 사회참여를 거부하던 30대 환자는 패션쇼를 통해 자신감과 행복감을 느꼈으며 지금까지 외모에 대한 자신감부족으로 모든 사회적 관계를 기피하였음을 인정하고, 곧 퇴원을 하였다고 한다(Miller, Carpenter & Buckley, 1960). Illinois의 Elgin 주립병원에서는 세탁장과 목욕실을 이용하여 장애자들의 외모관심을 높이고, 증상이 양호한 환자들에게 쇼핑기회를 주어 의복이 그들의 일부가 되고, 외모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도록 한 경우와 가정학자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의복선택 및 관리, 외모꾸미기 등을 재학습시킨 예가 있다(Matthews, 1975). Yoder와 Morgado(1985)는 정신지체 아동들도 외모를 꾸미려는 욕구를 지니므로 외모개선을 통해 자기존중감 향상뿐만 아니라 의복을 짓고, 벗거나 먹는 사람들의 이상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지체 학생을 정상학생과 함께 지내도록 한 결과 의복착용의 급속한 학습 효과가 있었으며, 정신지체 여성들의 색조합(color

puzzle)훈련을 통해 의복색 선택능력 향상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Callis(1982)는 Austin과 Texas 주립병원에 입원한 정신분열증 여자 환자를 대상으로 6주와 9주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공통적으로 자세, 영양, 운동, 피부 및 위생관리와 함께 머리손질, 화장, 매니큐어, 패디큐어, 의복 및 악세사리 착용 등의 외모개선, 에티켓, 모델링을 포함하고 사진촬영이 이루어졌다. 9주 프로그램은 복습, 의복관리와 수선, 미용학교 방문 및 헤어스타일의 변화 등이 추가되었다. 연구결과 신체 및 외모 만족도와 자기개념이 향상되고, 9주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인 외모 향상 효과가 있었다. 이 외에도 남자환자들과 간호사들 역시 외모관심이 높아지고, 병동에 큰 거울이 설치되었으며(강혜원, 1995), 많은 환자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였다(Miller, et. al., 1960)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의상치료 프로그램의 치료 효과와 더불어 프로그램내용의 다양성과 의상치료 대상 및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2. 정신장애자의 외모와 사회적응

Kefgen(1981)은 매력적인 외모의 가치는 매력성 자체보다 대인접촉 가능성을 높여 주는데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외모는 자긍심(pride)이나 타인에 대한 존경의 부족, 신체적 질병, 정신적 장애, 사회가치에 대한 부정, 타인으로부터의 관심유도, 관습무시, 무례함 등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정신장애자가 정상인에 비해 바람직하지 못한 외모를 하고 있다면 개인적 자긍심의 부족,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가 더 타당할 것이다.

정신장애자의 외모에 관한 연구는 실제 연령, 입원여부 및 증상에 따른 외모특징이나 외모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Gottheil 과 Joseph(1968)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외모와 실제 나이의 불일치는 정신분열증의 병리적인 주요 특징으로 입원기간, 신체활동 습관 외에 다양한 원인에 기인되며, 정신분석학적 차원에서 부적응적인 고착이나 퇴행 등과 같은 정신적 미성숙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Farina 등(1977)의 연구에서 입원환자들의 외모는 정상인에 비해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매력적인 환자가 적응만족도가 높고 병원 내에서도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력적이지 않은 환자는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기간이 길며, 적은 면회자의 수는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모는 사회적응의 단서가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과는 Napoleon, Chassin과 Young(1980)의 연구나 Archer와 Cash(1985)의 연구에서 거듭 지지되었으나 Napoleon 등(1980)은 정신장애자의 외모가 상·중류층의 정상인보다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하류층과는 차이가 없어 정신장애의 원인에 매력성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Farina 등(1986)은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전과 퇴원 6개월 후의 사회적응도 평가를 통해 외모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예후를 검증하여 좀 더 타당하고도 진보된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Fisher 등(1982)은 정신분열증 입원환자의 외모가 고용가능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매력성과 고용가능성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려는 방어적 동기와 적은 피험자 수에서 기인된 결과로 해석하여 두 변인간의 관계성을 시사했다. 또한 사회기술의 부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외모의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도된 Penn 등(1997)의 연구에서 정신분열증환자의 매력성과 대화기술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므로 외모는 곧 사회적응력의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연구는 사회기술훈련효과 연구가 대부분으로, 낮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외모관리훈련을 포함한 사회기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근희, 1995).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집에서 거주하며 아주대학병원, 의왕시의 계요정신병원, 수원시, 용인시 및 안산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낮병원 환자 24명과 용인정신병원 입원환자 13명의 만성정신분열증 여자환자로 총 37명이었다. 그러나 2차 측정까지 28명이 참여했고, 프로그램 끝까지 참여한 환자들은

낮병원환자 11명과 입원환자 10명으로 총 21명이었다. 최종분석 대상자인 17명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성을 보면, 평균연령은 전체 33.1세로 연령분포는 20대(40.5%), 30대(32.4%), 40대(21.6%)였고, 50대가 5.4%로 가장 적었다. 학력은 고졸이 59.5%로 가장 많고 중졸이하는 32.4%였다. 또한 60% 이상이 직업을 가진 경험이 없고, 가족의 총 월수입은 낮 병원환자 50% 이상이 100만원 이하였다. 질환을 앓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입·퇴원회수도 잦아, 기간이 35년인 환자와 입원회수가 8회인 환자도 포함되었다.

2. 측정도구 및 방법

1) 자기외모이미지 척도

본 연구를 위해 자기외모이미지 척도(self-appearance image scale)를 개발하였다.

남·여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평가 이미지형용사를 수집, 60개 형용사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적절하지 못한 형용사 즉 연령, 신체 및 성격 특성의 이미지, 장애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중성적인 이미지를 제외한 총 21개 형용사를 선정하였다. 즉 외모이미지 척도는 선정된 형용사를 현실적 외모이미지와 이상적 외모이미지를 나타내는 5점 척도의 긍정형의 문장으로 제작된 각 21문항씩 42문항이다. 요인분석결과 '매력적인' (36.9%), '품위있는' (8.5%), '대담한' (7.0%), '자연스러운' (5.3%)의 4가지 이미지요인이 추출되었다.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각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79, .70, .62$ 였다.

2) 자기존중감 척도

자기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는 Rosenberg (1965)가 자기개념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 또는 자기 수용감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한 5점 척도의 10개 문항이다. 한국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였으며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이 시사되었다(이훈진·원호택, 1995).

3) 정서 척도

정서척도(emotion scale)는 Zuckerman과 Lubin (1965)이 개발한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형용사로

된 MAACL(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을 사용하였다. 불안 10, 우울 24, 적개심 14문항의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상태 및 특질정서 측정이 가능하다. 4점 척도이나 다른 척도와의 일치를 위해 5점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다른 척도와는 달리 점수가 높을 수록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3. 프로그램 진행과정 및 내용

프로그램은 1999년 1월 14일부터 2월 12일까지 4주 동안 주 2회씩 총 8회에 걸쳐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패션쇼는 건국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생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외모관리 강좌, 화장 의복 및 악세사리 착용, 매니큐어, 머리손질 등의 외모개선을 기본으로 자세수정 및 걷기, 사진촬영을 하였고, 입원환자는 패션쇼, 낮병원 환자는 원도우쇼평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의복은 주로 재활용품과 필요에 의해 새로 구입한 것을 사용하였다. 단계적으로 프로그램도구의 양과 질을 증가시켜 실험중반에 이르러 전체 코디네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능한 다양한 의복스타일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3차 측정까지 참여한 환자 총 19명의 자료 중 신뢰할 수 없거나 부정적으로 왜곡된 답을 하였다고 판단된 자료 2부를 제외한 총 1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프로그램 시행 전에 1차, 5회째 2차, 종료 후인 3차 측정 자료 대해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paired t-test를 실시하여 1차와 2차, 2차와 3차, 1차와 3차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자기외모이미지 변화와 자기존중감 및 정서변화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자기외모이미지, 자기존중감 및 부정적 정서변화

1) 자기외모이미지

<표 1>에서와 같이 전체 현실적 외모이미지는 점차 향상되어 1차와 2차, 1차와 3차의 차이가 있었다($p < .01$). '매력적인', '품위있는', '자연스러운' 이미지는 1차와 2차, 1차와 3차의 차이가 있었고($p < .01$), '대담한' 이미지는 1차와 3차의 차이를 보여($p < .05$) 모든 이미지가 향상되었으며, 가장 많이 향상된 이미지는 '매력적인' 이미지였다. 이상적 외모이미지에서는 '매력적인' 이미지만 1차와 2차, 1차와 3차의 차이를 나타내($p < .05$) 매력적인 이미지를 지니고자 하는 기대가 높아졌다.

2) 자기존중감 및 부정적 정서변화

<표 2>에서와 같이 자기존중감은 1차의 3.44점에서 3.84로 증가하고, 3차에서는 다소 낮아져 1차와

2차의 차이가 있었다($p < .01$). 전체 부정적 정서는 점차 낮아져 1차와 3차의 차이가 있었으며($p < .05$), 요인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우울에서 차이가 있었다($p < .05$).

결과적으로 정신장애자의 외모개선이 실제 자기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매력적인 외모를 지니고자 하는 기대 및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 요인 중 '매력적인' 이미지가 가장 많이 향상되고, 기대 또한 높아졌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실제 외모개선이 아닌 외모에 대한 개인의 인지변화를 통해서도 자기개념이나 정서안정 효과가 있게 나타난 Butters와 Cash(1987)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실제 외모개선을

<표 1> 자기외모이미지의 점수 변화와 paired t-test결과

측정 차수 이미지 차원		1차		2차		3차	
		M	SD	M	SD	M	SD
현실적 외모이미지	매력적인	3.38 ^b	.74	3.77 ^a	.80	3.85 ^a	.53
	품위있는	3.50 ^b	.68	3.84 ^a	.59	3.84 ^a	.56
	대 담 한	3.31 ^b	.84	3.56 ^{ab}	.70	3.59 ^a	.66
	자연스러운	3.49 ^b	.67	3.88 ^a	.55	3.78 ^a	.69
전체		3.42 ^b	.68	3.79 ^a	.62	3.82 ^a	.53
이상적 외모 이미지	매력적인	3.79 ^b	.64	4.10 ^a	.61	4.13 ^a	.61
	품위있는	3.87	.58	4.12	.61	4.03	.68
	대 담 한	3.84	.54	3.84	.66	3.99	.53
	자연스러운	4.02	.49	4.14	.62	4.06	.63
전체		3.85	.54	4.07	.59	4.07	.61
이상적· 현실적 외모이미지 차이	매력적인	.40	.70	.34	.79	.29	.38
	품위있는	.37	.58	.28	.47	.19	.45
	대 담 한	.53	.61	.28	.61	.40	.52
	자연스러운	.53	.58	.26	.53	.28	.54
전체		.44	.51	.28	.56	.25	.39

a: 높은 평균점수, b: 낮은 평균점수, ab: a와 b평균점수와 동일

<표 2> 자기존중감, 부정적 정서의 점수변화와 paired t-test결과

측정 차수 변 인		1 차		2 차		3 차	
		M	SD	M	SD	M	SD
자기 존중감		3.44 ^b	.72	3.84 ^a	.60	3.74 ^{ab}	.59
부정적 정 서	불 안	2.78	.83	2.69	.72	2.44	.86
	우 울	2.85 ^a	.75	2.52 ^{ab}	.70	2.42 ^b	.87
	적개심	2.62	.45	2.41	.48	2.36	.61
	전체	2.77 ^a	.61	2.52 ^{ab}	.59	2.40 ^b	.76

a: 높은 평균점수, b: 낮은 평균점수, ab: a와 b평균점수와 동일

통해 자기개념 및 정서적 고양효과가 있었던 Napa 주립병원의 연구나 Callis(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자기외모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를 보았고, 본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해 현실적 외모이미지 뿐만 아니라 이상적 자기외모이미지와 각 이미지 요인의 변화를 보았으므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시행 후 첫 번째 측정인 2차에서 현저하나 3차에서 부정적 정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마지막 프로그램 내용이 정서고양에 보다 효과가 있었다고 이해된다. Callis(1982)의 연구에서 9주 프로그램에 참가된 내용이 비록 본 연구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으나 6주보다 자기개념이 향상되지 않은 결과와 일치하며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이 전반(前半)에 정신장애자들에게는 상당한 자극이 되었을 것이나, 횡수가 거듭할수록 자극에 익숙해진 피험자에게 도구가 상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을 수 있고 둘째, 1차에 비해 2차에서 현저히 향상된 피험자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고, 1차 측정 시 자기확대적 응답자료 2부가 전체 자료의 10%가 넘는 자료 양임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효과규명에 장애가 되었을 것이며 셋째, 자기존중감 척도가 외모관련 문항이 포함되지 않은 자기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문항으로 외모 향상이 총체적인 자기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는 정도는 한계가 있으며, 외모평가 자체를 자기존중감에 포함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기외모이미지 변화와 자기존중감, 부정적 정서변화의 상관관계

1) 현실적 자기외모이미지 변화와 자기존중감, 부정적 정서변화의 상관관계

<표 3>에서와 같이 1차에서 2차의 변화에서만 전체 현실적 자기외모이미지 변화는 자기존중감의 변화와 높은 정적 상관(p<.001)이 있었다. 각 이미

<표 3> 현실적 외모이미지변화와 자기존중감, 정서변화의 상관분석 결과

측정차수, 변인		1차-2차				
		자기 존중감	불안	우울	적개심	전체
1차-2차	매력적인	.75***	-.58**	-.52*	-.25	-.53*
	품위있는	.60**	-.77***	-.44	-.14	-.50*
	대담한	.67**	-.62**	-.48*	-.29	-.52*
	자연스러운	.25	-.21	-.04	.22	-.02
	전체	.73***	-.67**	-.49*	-.18	-.52*
측정차수, 변인		2차-3차				
		자기 존중감	불안	우울	적개심	전체
2차-3차	매력적인	.36	-.06	-.52*	-.61**	-.48*
	품위있는	.06	-.10	-.44	.29	-.36
	대담한	-.02	.31	-.15	.03	.17
	자연스러운	.44	.03	-.51*	-.15	-.32
	전체	.31	-.03	-.53*	-.46*	-.43
측정차수, 변인		1차-3차				
		자기 존중감	불안	우울	적개심	전체
1차-3차	매력적인	.32	-.61**	-.43	-.29	-.47*
	품위있는	.43	-.34	-.22	.12	-.18
	대담한	.34	-.46*	-.32	-.08	-.32
	자연스러운	.22	-.27	-.12	-.01	-.14
	전체	.41	-.49*	-.34	-.10	-.34

*p<.05 **p<.01 ***p<.001

지 요인 중 '매력적인', '품위있는', '대담한' 이미지가 자기존중감 변화와 정적 상관을 지녀, 특히 '매력적인' 이미지 변화가 높은 상관($p < .001$)이 있었다.

전체 현실적 외모이미지는 전체 부정적 정서변화와 부적 상관($p < .05$)을 보이고 이미지 요인 중 '매력적인', '품위있는', '대담한' 이미지변화와 상관이 있었다. 상관을 보인 정서 요인은 불안, 우울이었으나 특히 불안변화와 높은 상관($p < .01$)이 있었으며, 특히 우울과 상관을 보이지 않은 '품위있는' 이미지는 불안과 높은 부적 상관($p < .001$)이 있었다. 2차에서 3차까지 변화에서 1차에서 2차와는 달리 불안과 상관이 없었으나 우울, 적개심과 부적 상관($p < .05$)이 있었고, 이미지 요인 중 '매력적인' 이미지 변화와 상관을 지녀 특히 적개심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차에서 3차까지 변화에서의 상관은 정서 요인 중 불안감소 효과와 '매력적인' 이미지 향상의 영향력을 확인해 주었다.

인간의 정서적 문제가 자기개념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에 의하면 개인은 자기존중감과 자기가치감이 위협받거나 훼손되었다고 느낄 때 정서적 고통을 느낀다고 하였다(권석만, 1996). 본 연구결과는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사람은 긍정적 자기개념과 정서를 지니며 자신이 사회적 능력이 있고 정신장애와 관련이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Burn 등(1992)의 연구와 외모가 개인의 행복과 자기존중감 및 적응에 대한 임상적 평가와 정적 상관을 지니며 특성불안, 우울 그리고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과 부적 상관을 보인 여러 연구결과(Barocas & Vance, 1975; Mathes & Kahn, 1975; Cash & Smith, 1982; O'Grady, 1982)를 지지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자기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향상이 자기존중감 향상과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평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불안, 적개심의 요인 등도 감소될 수 있음과 함께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이미지는 '매력적인' 이미지였음이 밝

〈표 4〉 이상적 외모이미지변화와 자기존중감, 정서변화의 상관분석 결과

측정차수, 변인		1차-2차				
		자기 존중감	불안	우울	적개심	전체
1차-2차	매력적인	.09	-.06	-.31	-.30	-.29
	품위있는	-.10	-.17	-.33	-.50*	-.37
	대담한	.26	-.47*	-.60**	-.68**	-.66**
	자연스러운	.15	-.43	-.48*	-.39	-.51*
	전체	.09	-.25	-.46*	-.51*	-.48*
측정차수, 변인		2차-3차				
		자기 존중감	불안	우울	적개심	전체
2차-3차	매력적인	.24	.63**	.31	.58**	.49*
	품위있는	-.32	.30	.29	.34	.33
	대담한	.35	.53*	.34	.26	.39
	자연스러운	-.52*	.42	.70**	.63**	.67**
	전체	.01	.59**	.43	.56*	.55*
측정차수, 변인		1차-3차				
		자기 존중감	불안	우울	적개심	전체
1차-3차	매력적인	.39	-.16	-.31	-.13	-.26
	품위있는	.07	-.45*	-.36	-.17	-.36
	대담한	.22	-.43	-.51*	-.44	-.51*
	자연스러운	.06	-.53*	-.49*	-.27	-.48*
	전체	.27	-.37	-.44	-.22	-.40

* $p < .05$ ** $p < .01$

혀졌다.

2) 이상적 자기외모이미지 변화와 자기존중감, 부정적 정서변화의 상관관계

<표 4>에서와 같이 이상적 외모이미지 변화는 자기존중감 향상과 거의 상관이 없고, 정서와는 부분적으로 상관을 지녀 1차에서 2차의 변화에서 전체 부정적 정서, 우울, 적개심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p<.05$). 상관을 보인 '대담한', '자연스러운' 이미지 중 특히 '대담한' 이미지의 기대 향상은 높은 상관 ($p<.01$)을 보여 모든 정서요인과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2차에서 3차의 변화에서 외모에 대한 기대는 전체 부정적 정서, 불안 및 적개심변화와 그리고 이미지 요인 중 '매력적인',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특히 '자연스러운' 이미지 변화는 높은 상관 ($p<.01$)을 보이고 우울, 적개심과 상관이 있는데 비해, '매력적인' 이미지는 불안, 적개심 ($p<.01$)이었다. 대부분의 여성이 바라는 이미지이나 성취가 어렵고, 또한 평균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매력적인' 이미지에 대한 기대는 불안을, 기본적으로 성취가 쉬운 '자연스러운' 이미지에 대한 기대는 우울을 증가시켰으며, 공통적으로 비호의적 정서인 적개심 증가와 관련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적 상관은 프로그램 후반의 외모에 대한 기대와 부정적 정서의 지속적 감소에서, 또 다른 하나는 외모에 대한 기대에 비추어 실제 외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정서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외모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반증해 준다.

결과적으로 정신장애자는 자기존중감의 변화와 상관없이 긍정적인 외모이미지를 지니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으며, 1차에서 3차의 변화에서 상관의 정도가 약화되었으나 외모에 대한 기대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어 불안, 우울, 적개심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규명되었다. 또한 이미지 요인 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미지 요인은 내적 자신감을 포함하는 '대담한' 이미지와 기본 이미지인 '자연스러운' 이미지였으며, 평균이 높게 나타난 '매력적인' 이미지의 영향력이 규명되었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기대감만 높아질 때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을 시사해 준다.

3) 이상적·현실적 자기외모이미지차이 변화와 자기존중감, 정서변화의 상관관계

<표 5>에서와 같이 1차에서 2차의 전체 이상적·현실적 자기외모이미지 차이변화는 자기존중감 변화와 부적 상관 ($p<.05$)이 있었다. 이미지 요인 중 '매력적인', '품위있는',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상관을 보여, 특히 '매력적인', '자연스러운' 이미지 변화가 높은 부적 상관 ($p<.01$)이 있었다.

전체 정서변화와의 상관은 1차에서 2차의 변화에서 '매력적인' 이미지만 불안변화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2차에서 3차까지의 변화에서 전체 정서 및 정서요인 중 우울, 적개심과도 정적 상관 ($p<.01$)이 있었다. 상관을 보인 이미지 중 특히 '매력적인' 이미지는 적개심과 '자연스러운' 이미지는 우울과 각각 높은 정적 상관 ($p<.001$)이 있었다. 자기존중감 향상과의 상관은 1차에서 2차, 부정적 정서는 2차에서 3차의 변화와 상관을 보임은 자기존중감은 2차에서 가장 많이 향상되었고, 정서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Rogers(1959)는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의 차이가 많을수록 자기존중감은 손상되고 실망과 갈등을 느끼고 심하면 좌절하여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Kwon(1991)은 외모에 대한 긍정적이지 못한 인식은 이상적인 자기외모와 관련하여 자기존중감을 저하시키고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켜 외모와 관련한 자기보호책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의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각 변인간의 상관을 제시한 여러 학자들(Horn, et. al., 1981; Kefgen, 1981; 권석만, 1996)의 견해와 김양진(199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1차에서 3차의 변화에서 비록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인 외모 이미지를 지니고자 하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감소가 자기존중감 향상과 정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외모만족으로 불안보다 특히 이상적·현실적 자기의 불일치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인 우울과 비호의적인 대인감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 요인 중 '매력적인' 이미지의 변화가 자기존중감 및 모든

〈표 5〉 이상적·현실적 외모이미지 차이 변화와 자기존중감, 정서변화의 상관분석 결과

측정차수, 변인		1차-2차				
측정차수, 변인		자기 존중감	불안	우울	적개심	전체
1차-2차	매력적인	-.56**	.45*	.23	.00	.25
	품위있는	-.47*	.39	.06	-.26	.07
	대담한	-.39	.18	.05	-.28	-.06
	자연스러운	-.06	-.14	-.28	-.37	-.30
	전체	-.49*	.33	.05	-.21	.06
측정차수, 변인		2차-3차				
측정차수, 변인		자기 존중감	불안	우울	적개심	전체
2차-3차	매력적인	-.10	.41	.56**	.78***	.64**
	품위있는	-.27	.28	.48*	.43	.46*
	대담한	-.34	.33	.23	.22	.28
	자연스러운	-.57**	.19	.71***	.42	.57**
	전체	-.19	.41	.63**	.67**	.64**
측정차수, 변인		1차-3차				
측정차수, 변인		자기 존중감	불안	우울	적개심	전체
1차-3차	매력적인	-.06	.35	.09	.13	.17
	품위있는	-.30	-.06	-.10	-.23	-.13
	대담한	-.12	.04	-.17	-.31	-.16
	자연스러운	-.08	-.29	-.34	.22	-.32
	전체	-.10	.09	-.09	-.11	-.06

*p<.05 **p<.01 ***p<.001

정서요인과 높은 상관을 지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고, 정신장애자로 하여금 '매력적인' 이미지에 대한 기대를 향상시킨 결과에 비추어 더욱 바람직한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신장애자의 외모를 개선시켜 긍정적인 외모이미지가 자기존중감과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의상치료 프로그램의 치료적 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실제 자기외모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어 모든 이미지요인이 향상되었으며 '매력적인' 이미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자기존중감 역시 향상되었고, 전체 부정적 정서는 감소하

여 특히 우울이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효과는 프로그램 전반(前半)에서 뚜렷하였고, 자기존중감과 달리 부정적 정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둘째, 현실적 자기외모이미지 변화는 자기존중감 변화와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고, '매력적인', '품위있는', '대담한' 이미지와 상관이 있었다. 또한 부정적 정서변화와 부적 상관을 지녀 모든 정서요인과 상관이 있었으나 특히 불안, 우울과 상관이 많았고,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이미지는 '매력적인' 이미지였다.

셋째, 이상적 외모이미지 변화는 자기존중감 향상과는 상관이 없었고, 전체 부정적 정서 변화와 부적 상관을 보여 외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수록 우울, 적개심이 감소되었으나 이미지 요인에서 불안과도 약한 상관을 보였다. 이미지 요인 중 '대담한', '자연스러운' 이미지에 대한 기대가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에서 3차까지 변화에서의 정적 상관을, 또한 '매력적인' 이미

지가 정적 상관만을 보인 것은 특히 '매력적인' 외모를 지니고자하는 강한 기대를 반영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이상적·현실적 외모이미지 차이 변화는 자기존중감과 부적 상관, 부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을 지녀 특히 우울, 적개심과 상관이 있었다. 상관을 보인 이미지 요인 중 '매력적인' 이미지는 모든 정서요인과 상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상관은 의상치료 효과가 현저했던 프로그램 전반(前半)에서 현실적 외모이미지와 '매력적인' 이미지 변화에서 많은 상관이 있었다. 그러므로 첫번째 연구 결과에서 이상적 외모이미지, 이상적·현실적 외모이미지 차이 및 불안, 적개심과 같은 정서요인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상관분석 결과에서 현실적 외모이미지와 이상적 외모이미지 차원의 향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기존중감 향상과 모든 정서요인을 감소시킨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이상적 외모이미지의 부정적 정서와의 정적 상관은 정신장애자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시행이 요구됨을 시사해 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의상치료프로그램의 효과가 규명됨으로써 정신장애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적은 피험자 수와 증상,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에 사용된 도구의 양과 질의 한계성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보다 체계적이고도 강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요구된다. 또한 정신장애자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사례연구와 함께 부적절한 자세, 기괴한 행동 수정 효과 등의 또 다른 효과 연구 역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즉 패션단체 및 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높은 다양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의류학 전공자들의 적극적이고도 활발한 연구를 통해 의상치료 프로그램이 실제 치료현장에서 적용되어 정신장애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개정판). 서울: 교문사.
- 권석만(1996). 자기개념의 인지적 구조와 측정도구의 개발. 학생연구, 서울대학 생활 연구소, 31(1), 11-38.
- 김양진(1996). 유행의복이미지가 개인의 자아개념과 의복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1997). 정신보건 사업 지침.
- 이근희(1995). 정신과 낮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 성과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 논문.
- 이영문(1993). 환경치료의 이론과 실제. 용인: 용인정신병원.
- 이은영(1996). 미래사회의 의류학. 창립 20주년 기념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1-11.
- 이인자(1984 a). 정상인과 정신장애자의 욕구와 의복행동 간의 상관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이인자(1984 b).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 이정균(1996). 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이훈진·원호택(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년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277-290.
- 홍대식(1985). 심리학 개론. 서울: 박영사.
- 神山 進(1985). 被服心理學. 東京: 光生館.
- Archer, R. P., & Cash, T. F.(1985). Physical attractiveness and maladjustment among psychiatric inpati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2), 170-180.
- Barocas, R., & Vance, F. L.(1974). Physical appearance and personal adjustment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96-100.
- Bergin, A. E. & Garfield, S. L.(1971).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An empirical analysis. New York: Wiley & Sons.
- Burns, G. L., & Farina, A.(1992). The role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adjustment.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8(2), 195-213.
- Butters, J. W., & Cash, T. F.(1987).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women's body-image dissatisf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 Psychology*, 55(6), 889–897.
- Callis, C.(1982). Appearance programs with chronic psychiatric hospital patients: A comparison of six–week and nine–week treatment interventions. *Journal of Rehabilitation*, October/November/December, 34–39.
- Cash, T. F., & Smith, E.(1982). Physical attractiveness and personality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y*, 111, 183–191.
- Farina, A., Fisher, E., Sherman, S., Smith, W. T., Groh, T., & Mermin, P.(1977). Physical attractiveness and mental illn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6(5), 510–517.
- Farina, A., Burns, G. L., Austad, C., Bugglin, C., & Fisher, E. H.(1986). The role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the readjustment of discharged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2), 139–143.
- Feather, B. L., Kaiser, S. B., & Rucker, M.(1988). Mastectomy and related treatments: Impa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on self–esteem.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2), 127–139.
- Fisher, E. H., Farina, A., Council, J. R., Eastman, A., & Millard, R.(1982). Influence of adjustment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n the employability of schizophrenic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4), 530–534.
- Fitzwater, N. L., Moore, C. L., & Gurel, L. M.(1993). Clothing importance and self–perception of female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scoliosi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1(3), 16–21.
- Goffman, E.(1963). The Mentally Ill and Management of Personal Front. In Roach, M. E. & Eicher, J. B.(Eds.), *Dress and Identity*. 116–118. New York: John Wiley & Sons.
- Gottheil, E., & Joseph, R. J.(1968). Age, appearance, and schizophrenia. *Arch Gen Psychiat*, 19, 232–238.
- Horn, M. J., & Gurel, L. M.(1981). *The second skin*(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Kefgen, M.(1981). *Individuality*(4th ed.). New York: Macmilan.
- Kwon, Y. H.(1991).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mood and self–consciousness on the selection of clothing.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9(4), 41–46.
- Mathes, E. W., & Kahn, A.(1975). Physical attractiveness, happiness, neuroticism and self–esteem. *The Journal of Psychology*, 99, 27–30.
- Matthews, L. B.(1975). Improving in the self–image of the socially disabled,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3, 8–14.
- Miller, T. K., Carpenter, L. G., & Buckley, R. B.(1960). The therapy of fashion. In Roach, M. E. & Eicher, J. B.(Eds), *In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269–270. New York: John Wiley & Sons.
- Napoleon, T., Chassin, L., & Young, T. D.(1980).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 physical attractiveness and mental illn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2), 250–253.
- O’Graddy, K. E.(1982). Sex, physical attractiveness, and perceived risk for mental ill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064–1071.
- Penn, D. L., Mueser, K. T., & Doonan, R.(1997). Physical attractiveness in schizophrenia: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skill. *Behavior Modification*, 21(1), 78–85.
- Rickert, V. I., Hased, S. J., & Cunniff, C.(1996). The effect of peer ridicule on depression and self image among adolescent females with turner syndrom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9, 34–38.
- Watkins, D.(1978).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self–esteem measuring instru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171–182.
- Yorder, K. A., & Morgado, M. A.(1985). Clothing for the mentally retard,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Spring, 33–39.